
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19. 2. 25.(월) 총 4매(본문3, 참고1)	
담당 부서	국제항공과	담 당 자	과장 신윤근, 사무관 황성필, 주무관 강규욱 - ☎ (044) 201-4207, 4211, 4209	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몽골 하늘길 활짝, 인천-울란바타르 독점노선 해소 25일 항공교통심의위서 운수권 배분…부산-창이 첫 증장거리 취항 예정

- 30년 가까이 하나의 항공사만 취항이 가능했던 인천-울란바타르 노선에 새로운 항공사가 진출(주3회)하고, 김해공항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첫 증장거리 직항편(주14회 2개사)이 생기는 등 항공 이용자의 선택의 폭과,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2월 25일,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,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-울란바타르, 부산-창이(싱가포르) 등 증대 운수권과, 기타 정부보유 운수권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(16개 노선)하였다고 밝혔다.
 -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하여 항공사 간의 경합이 발생한 인천-울란바타르, 부산-창이, 한-마닐라, 한-우즈베키스탄 노선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(부령)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배분되었다.
- * 통상 운수권은 매년 2~3월경 정기 배분되며, 「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에 관한 규칙(국토부령)」에 의거, 「항공교통심의위원회」 심의를 통해 배분

- 먼저, '18.1월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-울란바타르 간의 운수권 주3회는 아시아나 항공에 주3회 배분되어, 기존의 독점 구조를 깨고 운항 항공사의 다변화와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.
- 또한, 추가로 확보한 부산-울란바타르 간의 운수권 주1회는 에어부산에 배분되어 경남 지역 주민의 몽골 여행길이 더욱 넓어질 예정이다.
- 한편, 김해공항으로부터의 첫 중장거리 노선으로 많은 관심을 모은 부산-창이 노선은,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에 각 7회분 배분되어, 향후 지방공항의 취항노선 확대 등의 좋은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,
- 단거리 위주의 운항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저비용항공사에 있어 사업 확장의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.
- 아울러, 한-마닐라 노선의 경우, 에어부산에 주950석(약 5회)이 배분되었고, 기존에 운항하던 대한항공에도 주178석(약 1회)이 추가로 배분되어, 높은 탑승률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 노선의 혼잡이 비교적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- 한-우즈베키스탄 노선의 경우에는 기존에 운항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 1회씩 추가 배분되어 국적사의 취항 빈도가 늘어나는 만큼, 우리 국민이 여행계획을 세우거나, 비즈니스를 할 때 편의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그 밖에, 한-헝가리, 한-런던, 한-밀라노·로마 등의 12개 비경합 운수권이 우리 국적사에 신규 또는 추가로 배분되어, 우리 국민의 하늘길이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.

- 이번 운수권 배분은 국적항공사들의 보다 다양한 항공노선 운항을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의 편의향상과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제고, 국내 공항의 성장 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은 항공당국의 허가,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하계 운항 일정이 시작되는 3월 31일부터도 취항이 가능하다.
- 국토부 관계자는 “이번 심의는 독점노선의 해소와 지방공항 중장거리 노선 취항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”면서,
 - “향후 중국 등 주요국가와의 항공회담 등을 통해 항공사에는 운항기회의 확대, 국민에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한 편의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황성필 사무관(☎ 044-201-42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

노선별 운수권 배분결과 총괄표

순번	노선		배분 대상 항공사
1	경합	인천-울란바타르	아시아나항공 (주3회)
2		한-마닐라	에어부산 (주950석) 대한항공 (주178석)
3		한-우즈베키스탄	대한항공 (주1회) 아시아나항공 (주1회)
4		부산-창이	이스타항공 (주7회 규모) 제주항공 (주7회 규모)
5	비경합	한-러시아	대한항공 (주3회)
6		부산-울란바타르	에어부산 (주1회)
7		한-헝가리	대한항공 (주4회)
8		한-네덜란드	대한항공 (주1회)
9		한-네덜란드(화물)	대한항공 (주1회)
10		한-런던	대한항공 (주3회)
11		한-밀라노·로마 등	대한항공 (주1회)
12		나리타 이원5자유	대한항공 (주1회)
13		한-호주	대한항공 (주649석) 아시아나 (주22석)
14		한-카자흐스탄	아시아나 (주290석)
15		인천-울란바타르(화물)	에어인천 (주1회)
16		한-러시아(화물)	에어인천 (주1회)